

小兒 記憶에 관한 韓醫學的 考察

金祺峰 · 金璋顯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小兒科教室

Study of the poor intelligence and failing of study in Children

Ki-Bong Kim · Jang-Hyun Kim

Dep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In children, the poor intelligence and failing of study from it raise problems in mentality, character and society. The poor intelligence and failing of study are closely connected with brain, Xin(心), Shen(神), Jing(精), Qi(氣).

In this paper, studying causes of the poor intelligence and failing of study, through documents, I can obtain such conclusions.

1. Xin(心) takes charge of brain and manages life, mind and mentality.
2. Shen(神) controls mind and Jing(精) is the origin of life. So Shen and Jing must be built up for increase of memory and study.
3. For increase of intelligence and study, Qi(氣) must go round smoothly.
4. Causes of the poor intelligence and failing of study are the lack of blood, damage of Shen(腎), huo(火), phlegm etc.

I. 緒論

人間은 약 一千 億개의 腦細胞를 가지고 있으며, 腦에 있는 顆粒細胞까지 합하면 열 배가 넘는 一兆 개의 腦細胞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人間이 가

지고 있는 이 一千 億 개의 腦細胞는 母體의 甕속에 있는 妊娠 9개월 동안에 모두 생성되며 胎兒가 태어날 때 腦細胞의 生成은 중단된다. 그리고 胎兒가 세상에 태어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靑壯年期를 거쳐 老人이 되는 과정에서 腦細胞는 계속 죽어 그 수가 줄어들게 된다.¹⁾

西洋醫學에 腦는 脊髓와 함께 中樞神經系를 형성하며 末梢에서 오는 體内外의 모든 정보를 통합, 분석, 정리한 후 結論을 내려 末梢神經을 통하여 적절한 精神 및 肉體 活動을 영위하며 自律神經에 의하여 內臟器官을 조절하는 中樞이다.²⁾

이와는 달리 韓醫學에서는 「靈樞·本神篇」에 “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隨神往來者，謂之魂，并精而出入者，謂之魄，所以任物者，謂之心，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因志而存變，謂之思，因思而遠慕，謂之慮，因慮而處物，謂之智³⁾”라 하여 출생하여 事物에 대한 認知에서 思考까지의 認知過程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記憶力 障礙에 대하여 健忘, 喜忘, 多忘 등으로 稱하고 있으며,⁴⁾ 心, 脾, 腎이 健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身體的 異常으로 記憶力 減退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小兒에게 있어 記憶力 減退와 이로 인한 學習能率 低下는 위축되거나 난폭하게 되는 精神的, 性格의 障礙를 초래함으로써 情緒的 障礙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도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本人은 文獻의 考察을 통해 小兒의 記憶力 障礙와 學習能率 低下의 原因을 살펴보고 韓醫學의 治法과 處方을 研究함으로써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報告하고자 한다.

II. 本論

1. 記憶力과 學習能力에 聯關된 韓醫學의 概念

1) 心의 概念

心은 人體 生命活動의 主宰로서, 臟腑 가운데에서

도 首位를 차지하며 각 부분을 統割하므로 “心爲一身之主”라고 하는데, 「靈樞·邪客篇」의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精神之所舍也”，³⁾ 「素問·靈蘭秘典論」의 “心者君主之官”，⁵⁾ 「靈樞·師傳篇」의 “五臟六腑，心爲之主”³⁾ 등의 文句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人間의 思惟活動이나 臟腑機能의 協調 및 氣血의 通暢 등도 모두 心의 機能에 依存하므로 心이 生命活動의 中心이라고 보아진다.

「素問·靈蘭秘典論」의 “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⁵⁾이나 「靈樞·邪客篇」의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精神之所舍也”³⁾ 등은 人間의 精神이나 思惟·意識活動이 모두 心에 의해 支配를 받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頭爲精明之府”，⁵⁾ “腦爲元神之府”라는 說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靈樞·本神篇」에서 말하는 “任物者，謂之心”³⁾이라는 것은 外界의 事物을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思惟活動이 모두 心에 의해 완성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人間의 生命의 起源은 精에 있고, 生命의 活動能力은 氣이며, 그것이 外在적으로 표현된 것이 神이다.

「黃帝內經」에서는 “兩精相搏謂之神”，“變化不測謂之神”，“故神者，水穀之精氣也”라고 하여 神의 生成과 作用에 관한 내용이 나오며, 이 내용을 보면 精血이 神志活動의 物質的 基礎가 된다는 것과 함께 “心生血”이나 “心主血脈”은 “心主神志”의 機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그러므로 心血이 充滿한 경우에는 精神狀態가 明皙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敏捷하게 되지만 心血이 不足한 경우에는 心悸, 失眠, 多夢, 健忘, 心神不安 등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2) 神의 概念

神이란 思想意識 및 모든 生命活動의 現象, 즉 生命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根源은 生命과 같아

서 父母雙方的 精氣가 交合하여 生成되는 것이니, 胚胎가 形成되면 生命의 神도 동시에 생기게 된다.

「靈樞·本神篇」에 “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³⁾”이라 하였으며, 「靈樞·天年篇」에는 “以母爲基，以父爲楯，失神者死，得神者生也³⁾”이라 하였고, 「聖惠方」에서는 “天地之精氣化萬物之形 父之精氣爲魂 母之精氣爲魄⁷⁾”이라 하였다. 이는 神이 生命體의 始生과 더불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出生後에는 飲食物을 섭취하는 것에 의하여 神도 滋養을 받아 무궁한 活動을 계속하게 된다. 이를 「靈樞·平人絕穀篇」에서는 “神者 水穀之精氣也³⁾”라 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⁵⁾”이라 하였다.

肉體와 神은 一體가 되어 하나의 生命體로서의 機能을 營爲해 나가며, 여러 가지 生命活動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生命現象을 편의상 肉體의인 面과 精神의인 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⁸⁾ 그 根本은 하나의 統一體의 有機體의 生命活動에 지나지 않으며, 神이 人間의 모든 生命活動을 主管하고 統制하는 主體가 된다고 보여진다.

人間의 精神機能의 具體的인 現象으로서 나타나는 感情을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七情으로 나누며, 이런 感情을 統括하는 것은 一身의 君主격인 心臟에 있는 神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神이 과도한 精神活動으로 인하여 損傷되면 神志不足, 健忘, 怔忡, 驚悸, 精神短小, 多夢, 不安 등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과 學習能力에 있어서도 역시 神의 作用이 중요하다고 보아지며, 記憶力 및 學習能力的 向上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根本이 되는 神을 滋養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려된다.

3) 精의 概念

韓醫學에서 精이란 生命의 原初的 物質로 認識되고 있다. 精은 先天의 腎氣와 後天의 水穀之氣가 결합하여 化生되어지며 人體를 구성하고 生命活動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精은 人類가 존속해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는 “夫精者，身之本也⁵⁾”라 하여 精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精은 狹義의 精과 廣義의 精으로 나누어진다.⁸⁾ 狹義의 精이라 함은 腎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生殖能力을 갖춘 物質, 즉 生殖의 精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靈樞·決氣篇」에서 말하는 “兩神相搏，合而成形，常先身生，是謂精³⁾”은 男女 兩性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各自의 生殖能力으로써 人類를 존속시키는 일을 행하는 精을 말하는 것인데, 일단 이 兩精이 결합한 후 母胎內에서 養育되고 形體를 갖추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個體가 탄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廣義의 精이라 함은 水穀의 精微로움에서 化生하여 腎에 저장되어져 있는 精과 五臟六腑의 精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氣, 血, 津液도 모두 이러한 精의 範圍內로 이해되어지는데, 이들은 相互依存하고 變化하며 補充함으로써 正常的인 生命活動을 維持하게 된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말하는 “腎者主水，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故五臟盛，乃能瀉⁵⁾”는 腎이 生殖의 精과 臟腑의 精을 藏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精이 充足하면 人間이 健壯해지고 精이 不足하면 衰弱해지는 것이다.

精은 또한 髓를 生하는 작용도 하는데, 髓는 腦로 通하고 腦는 髓之海가 된다. 이에 관하여 「靈樞·海論」에서는 “腦爲髓之海³⁾”라 하였으며, 「素問·五臟生成篇」에서는 “諸髓皆屬於腦⁵⁾”라고 하여 頭腦가 精髓의 集合體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頭者，精明之府⁵⁾”라고 하여 人

間의 精神活動이 腦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靈樞·海論」에서는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汕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³⁾”라고 하여 肢體의 活動과 耳目의 聰敏함과 모든 精神活動이 모두 腦髓와 有關함을 알 수 있다.

精의 또다른 작용으로는 풍부한 生命力을 가지고 病邪에 抵抗함으로써 人體로 하여금 疾病을 避免케 하는 작용이 있다.⁶⁾ 精이 充滿하면 生命力도 強해져서 衛外가 固密하게 되고 적응력도 強해져서 邪氣가 쉽사리 침입하지 못하게 되지만, 만약 精이 虧虛하게 되면 生命力도 弱해져서 衛外가 固密치 못하게 되고 적응력도 弱해져서 邪氣의 침입이 수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精氣奪則虛”라고 하며, “邪之所湊, 其氣必虛”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素問·金匱眞言論」에서도 “故藏於精者, 春不病溫, “多不藏精, 春必病溫”이라 하여⁵⁾ 精에는 抗病, 防邪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 發達을 促進시키고 學習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精을 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4) 氣의 概念

先人들은 自然現象을 인식함에 있어서 世界를 형성하는 가장 基本的인 物質을 氣라고 보았으며 氣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서 모든 事物이 생겨난 것으로 인식한 것처럼, 韓醫學에서도 人體를 구성하는 基本物質을 氣라고 보며 氣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 生命活動이 發顯하는 것으로 인식한다.⁶⁾ 「素問·寶命全形論篇」에서는 “人以天地之氣生”, “天地合氣, 命之曰人⁵⁾”이라고 하여 人間은 天地의 氣運에 의해 生養되어짐을 말하고 있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氣化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⁵⁾”이라고 하여 人間의 生命活動 역시 氣가 기초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氣는 活動性이 매우 強한 精微로운 物質로서 잠시도 쉬지 않고 全身을 運行하는데, 氣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運行方式 또한 서로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運行方式은 “升降出入”이라고 보아진다. 「素問·六微旨大論」에 이르기를 “升降出入, 無器不有⁶⁾”라 하여 人體의 모든 臟腑活動이 升降出入하는 氣의 運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運行은 人體의 生命活動을 형성하는 外在的 表現인 까닭에 運行이 停止한 즉 生命도 死滅하게 된다. 그러므로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⁵⁾”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氣의 升降出入은 臟腑機能의 相互協助와 相互配合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氣가 通暢·調達됨으로 말미암아 升降出入하는 運動이 平衡狀態를 형성하여 正常的인 生理機能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氣의 運行이 失常하여 阻滯되거나 逆亂되거나 升降이 失調되어 出入이 不利해지면 五臟六腑에 영향을 미쳐서 上下內外로 肝氣鬱結, 肝氣橫逆, 胃氣上逆, 脾氣下陷, 肺失宣降, 腎不納氣, 心腎不交 등의 각종 病變이 발생하게 된다.⁶⁾

小兒는 生理的으로 腎이 弱한 반면에 心이 旺盛하기 때문에 心理的 障病 및 泌尿生殖器 障病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으며, 肺가 弱하기 때문에 宣發, 肅降 機能이 원할하지 못하므로 呼吸에 障病이 잦으며 이로 인해 頭腦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과 學習能力 向上에 있어서 氣의 升降出入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며, 반드시 氣의 원할한 運行을 並行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5) 精·氣·神의 關係

精·氣·神은 人間의 生命의 根本으로서 서로간에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實際的으로 不可分割의 整體를 이루고 있으니, 「靈樞·本神篇」에서 “是故五

臟主藏精者也, 不可傷,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³⁾라고 한 것은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 보아진다.

五臟은 精을 藏하고 精은 神의 舍가 되므로 精이 있으면 神도 있게 되며 精을 蓄積하면 神이 완전해진다. 또한 精은 氣의 母가 되니 精이 虛하면 氣가 없어지고 氣가 없어지면 죽게 된다. 그러므로 精과 氣와 神을 生命의 關鍵이라고 하는 것이다. 精·氣·神의 生成은 水穀의 精微와 五臟六腑의 正常的인 機能으로 말미암으며, 五臟六腑의 機能이 또한 精·氣·神에 依賴함으로써 物質의 基礎를 이루고 있으니,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 사이에는 相互消長과 相互關聯 및 相互促進의 關係가 이루어지게 된다.

6) 韓醫學의 人 腦의 概念

腦는 脊椎와 함께 中樞神經系를 형성하며, 末梢에서 오는 體內外의 모든 정보를 통합, 분석, 정리한 후 결론을 내려 末梢 神經을 통하여 적절한 精神 및 肉體活動을 영위하며 自律神經에 의하여 내장기관을 조절하는 中樞이다.²⁾

그러나 韓醫學에서는 이런 西洋醫學에서의 腦의 概念과는 별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腦에 대해 「內經」에서는 「寄恒之府⁵⁾」, 「骨之海³⁾」라고 하여 獨立的인 器官으로 인정하지 않고 臟腑의 機能이 나타나는 被動的인 器官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唐의 孫思邈은 「頭者 人之元首 人神之所注⁹⁾」라 하여 腦는 神이 內在된 器官임을 제시하였으며, 明의 李時珍에 이르러 「腦爲原神之府」라 하여 腦가 神을 包括하는 主體的 器官임을 명확히 主張하였다. 清代에 西洋醫學이 流入되면서 腦主記憶說, 強記健康由腦說, 靈機記性在腦說, 腦散動覺之氣說 등 여러 學說이 제시되었다.¹⁰⁾

이런 다양한 認識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腦에 대한 認識의 根本은 「內經」에 두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內經」 이래로 韓醫學에서는 인간의 생명활동 현상 및 정신활동은 「心藏神」이라 하여 心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五志, 七情을 五臟에 배속하여 정신활동 및 정서와 五臟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腦髓의 생성면에 있어서는 「腎主骨生髓 通於腦」라 하여 腎精에서 생성한다고 인식하였다.⁶⁾

「內經」에서는 心, 腦 神의 사이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준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⁵⁾」라 하여 心과 神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精은 髓를 生하고 髓는 腦로 通하여 腦는 髓之海가 된다하여 「靈樞·海論」에서는 「腦爲髓之海³⁾」라고 표현하였다. 「素問·五臟生成篇」에서는 「諸髓皆屬於腦⁵⁾」라고 하여 頭腦가 精髓의 集合體임을 밝히고 있으며, 「靈樞·海論」에서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氣蓋, 下在風府³⁾」라 하여 腦의 위치를 위로는 百會穴과 아래로는 風府穴 사이로 定義하고 있다. 또한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頭者, 精明之府⁵⁾」라고 하여 人間의 精神活動이 腦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靈樞·海論」에서는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沏眩暈, 目無所見, 懈怠安臥³⁾」라고 하여 肢體의 活動과 耳目의 聰敏함과 모든 精神活動이 모두 腦髓와 有關함을 보여준다.

또한 「醫林改錯」에서는 「靈機記性在腦者 因飲食生氣血 長肌肉 精汁之清者 化而爲髓 由脊骨上行入腦 名曰腦髓 鼻通於腦所聞香臭歸於腦 兩耳通腦所聽之聲歸於腦 目系如線長於腦者乃祖神之也¹¹⁾」라 하여 腦와 脊髓와의 관계 및 嗅覺, 聽覺, 視覺을 지배하는 腦機能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는 西洋에서 들어온 解剖學에 기초하여 종래의 心藏神 理論과는 달리 腦가 人體의 生命活動 및 精神活動 機能을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 및 學習能力 發達을 위해서는 이런 心, 腦, 神의 相互關係를 精確하게 認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단순히 腦의 發達만을 目的으로 하기보다는 心과 身을 滋養시킬 수 있는 보다 包括的이고 廣範圍한 治療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된다.

7) 記憶의 概念

腦는 첫 번째로 感覺機能을 통하여 세상을 접촉하고, 感覺機能과 腦와의 정보망을 구축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한다. 이것을 記憶이라고 하는데 感覺機能을 통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腦는 記憶 用量을 정보의 양에 따라 확장한다. 腦는 사용하는 양이 많으면 많은 만큼 記憶 用量이 커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用量이 작아진다.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되는 腦細胞는 서서히 줄어들고 결국 無用之物이 된다. 이것을 apoptosis라고 한다.¹⁾

평균 3세가 되면 幼兒의 腦는 成人 腦의 70% 크기까지 커진다. 이 기간 중에 많은 정보망을 만들며, 視覺, 聽覺, 觸覺 등의 感覺機能과 腦의 정보망과의 관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腦細胞의 性質과 機能은 腦의 플라스틱 성질 때문이며,¹⁾ 컴퓨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腦만의 孤有機能이다. 腦와 腦細胞는 플라스틱처럼 외부의 자극에 따라 쉽게 정보망을 구축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플라스틱성질이 조금씩 없어진다. 記憶力의 減退나 癡呆는 결국 이런 기전에 의해 發病하게 된다.

「證治準繩」에서는 “人生氣稟不同 得氣之清 則心之知覺者明 心之明者 無有限量 雖千百世 已往之者 一過目則終身而不忘”¹²⁾이라 하여 記憶의 機轉을 설명하고 있다.

記憶力 減退는 韓醫學의 으로 健忘, 善忘, 喜忘, 多

忘, 易忘, 好忘으로도 불리우며,⁴⁾ 자신의 前事와 前言을 망각하기를 잘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으며,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首尾를 알지 못한다. 또한 「類證治裁」에서는 “健忘者 陡然忘之 盡力思索不來也”¹³⁾라 하여 갑자기 잊어버리고 思索을 하여도 생각해 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類證治裁」에서 “夫人之神宅於心 心之精依於腎 而腦爲元神之府 精髓之海 實記所憑也 正希金先生曰 凡人外有所見 必留其影於腦 小兒善忘者 腦未滿也 老人健忘者 腦漸空也”¹³⁾라고 하여 사람의 神은 心에 자리잡고 있으며 心之精은 腎에 의지하고 있는데, 腦는 元神之府, 精髓之海이므로 腦髓가 不足해지면 健忘이 發生한다고 보았으며,^{3,5)} 小兒와 老人는 그 原因이 다름을 밝히고 있다.

「醫學心悟」에서는 “腎主智 腎虛則智不足 故喜忘其前言”, “心藏神 神明不充 則遇事遺忘也”, “健忘之症 大概由于心腎不交 法當補之… 亦有痰因火動 痰客心包者 此乃神志昏憤 與健忘症稍不相同 法當清心開竅…”¹⁴⁾이라 하여 健忘의 原因을 心腎不交로 보고 있으며, 또한 火로 인하여 생긴 痰도 健忘症과 有關하다고 보아진다.

2. 記憶力 發達 不振 및 減退의 原因과 治法

小兒 心身의 不攝生으로 體內의 生理機轉에 過不足이나 不均衡이 생기면 하나의 生理的 異變으로 나타나는 精損, 血虛, 火, 痰 등은 傷神의 중요한 原因이 된다고 보아진다.⁸⁾

1) 腎陰虛

「靈樞·本神篇」에서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³⁾라 하여 志는 意와 함께 韓醫學에서 記憶의 過程으로 인식하며, “脾藏意 腎藏志”⁵⁾라 하여

記憶을 脾, 腎의 作用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脾는 後天之本으로서 食物을 소화시켜 營養을 공급함에 의해 生命活動이 영위되어 意가 自生하며, 脾와 관련된 記憶은 意識에서 활동하는 短期記憶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반면에 腎과 관련된 志는 意中에서 보존된 것으로서 腎藏精, 精生髓한 骨髓에 記憶되며, 現在의 記憶 속에는 없지만 저장되어 있다가 想起 가능한 長期記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진다.¹⁵⁾

小兒는 生理的으로 腎陰이 不足하며, 반면에 小陽之體라 하여 陽熱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小兒에게 腎陰이 虧損되면 頭腦가 空虛해지게 되므로 머리가 어리럽거나 健忘症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腎陰이 不足하고 陰虛해지면 內熱이 발생하므로 微熱症狀이 나타나고, 虛火가 上炎하여 心火를 搖動케 하여 觀紅, 心煩, 失眠 등의 症狀이 동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症狀은 腎陰이 不足하게 되면 腦와 心에 영향을 주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腎陰이 虛해지면 記憶力 發達이 不振하게 되며 學習能力이 低下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治法으로는 滋陰補腎, 滋陰降火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진다. 腦髓는 腎精이 變化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腦髓의 正常과 病態는 腎臟 精氣의 盛衰에 따라 진단되며, 腎生骨髓 하는 관계에 의해 腎臟과 骨髓의 不足에 의해 일어난 病態를 대할 때는 治療에 있어서 補腎을 위주로 해야한다. 이것은 腎이 充實하면 髓도 充實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滋陰補腎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六味地黃丸을 사용하여¹⁶⁾ 熟地黃으로 滋陰補腎, 填精益髓生血하고, 山藥으로 健脾, 固精縮尿시키며, 山茱萸로 溫補肝腎, 收斂精氣함으로써 三補를 형성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澤瀉로 心火를 瀉하고, 牡丹皮로 肝火를 瀉하며, 茯苓으로 脾濕을 滲濕시킴으로써 三瀉를 형성한다.¹⁷⁾ 腎陰虛한 상태가 뚜렷한 경우에는 純甘壯補하는 左歸丸¹⁶⁾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腎陰이 不

足하면서 氣血이 모두 虛한 경우에는 大補陰煎을 사용한다.¹⁶⁾

滋陰降火를 위주로 치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知柏地黃丸을 사용하여 六味地黃丸으로써 腎陰을 補하도록 하며, 그 기초위에 知母와 黃柏을 加하여 陽熱을 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知柏地黃丸은 滋陰作用과 瀉火作用이 모두 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陰虛火旺의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陰虛火旺하면서 骨蒸潮熱, 盜汗症狀이 並行하여 나타나는 경우에는 大補陰煎¹⁶⁾이나 當歸地黃湯¹⁶⁾을 사용하는 것이 有效하다고 사려된다.¹⁶⁾

2) 血虛

血은 脈管 內를 順行하는 赤色の 液體로써 水穀의 精微로운 成分이 氣化作用을 거쳐 生成된 것이며, 心과 氣의 推動作用에 의해 脈中을 잠시도 쉬지 않고 순환하면서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營養物質로 臟腑와 組織, 器官, 四肢百骸, 五官, 九竅에 이르기까지 濡養하며 順行하는 必須的인 요소이다.⁶⁾

「醫門寶鑑」에서는 心脾二經을 주요 관건으로 보았는데, 心脾는 思를 주로 담당하므로 思慮過多하면 心이 傷하고 血이 손상하여 神을 지키지 못하게 되며, 脾가 傷하면 胃氣가 傷하여 쓸데없는 생각을 되풀이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醫學入門」에서는 怔忡이 오래되어 健忘이 되는 것은 心脾二經에 血少하고 神虧한 것이라 인식하였다.¹⁸⁾

營血은 精神活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五臟을 養하고, 七神이 五臟의 機能에서 發하므로 營血의 盛衰는 精神機能의 靈敏와 관계가 깊다고 보아진다. 「東醫寶鑑·血門」에 의하면 “營者水穀之精也 生化於脾 總統於心 藏受於肝 宣布於肺 施泄於腎 灌溉一身”¹⁸⁾이라 하여 營血은 飲食物의 精微한 物質로써 脾의 消化機能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이를 總括 統攝하는 것은 心이며, 肺의 氣化作用을 통하여 全身에

分布되며, 肝은 이를 受藏하고, 腎은 血中の 老廢物이나 異物質을 排泄시킴으로써 營血을 淨化시킨다.

이와 같이 營血의 生成, 循環에는 五臟이 관여하며, 五臟 역시 營血로 營養되어 있으므로, 營血의 不足이나 質的인 變化나 變調는 五臟生理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精神生理의 變調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心脾의 營血이 不足하면 健忘症이 發生하는 것도 이러한 緣由라고 보아진다.

心血과 陰이 虛하여 共通의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心煩, 易驚, 失眠, 健忘인데,⁶⁾ 이는 血이 生化하는 源泉이 不足하거나 失血이 原因이 되어 發生하며 혹은 지나친 精神力의 疲勞로 인하여 營血이 虛損해지거나 陰精이 消耗되어서도 나타난다. 心은 본래 血을 주관하고 血은 陰에 속하므로, 陰血이 부족한 경우에는 心神이 滋養되지 못하고 收斂되지도 못함으로써 失眠, 健忘, 易驚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血이 心을 滋養하지 못함으로써 心悸, 心煩과 같은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라 보아진다.

이런 경우 歸脾湯,¹⁶⁾ 十補丸¹⁴⁾으로 主之하며, 火動으로 인하여 痰이 心包에 客한 때에는 淸心開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에는 二陳湯¹⁶⁾에 薑汁, 竹瀝을 加하거나 朱砂安神丸¹⁸⁾을 사용하면 有效하다.

小兒에게 血虛가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도 顏色이 蒼白하고, 口唇이 淡白하며,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하고, 心悸와 失眠이 있으며, 舌質淡, 脈細無力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心悸나 多夢, 易驚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心血이 不足한 경우로서 記憶力 및 學習能力 發達을 阻礙하므로 四物湯, 當歸補血湯 등의 處方을 사용하여 補血養血시키는 것을 주된 治法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필히 먼저 養心血하고 理脾土하여 凝神定智之劑로 調理하고 淸閑하고 安樂한 곳에 居處하게 하며 모든 憂慮를 끊고 六淫과 七情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¹⁸⁾

3) 火

火는 生理的으로 陽氣에서 化하는 것이며, 生命의 動力으로 知覺, 運動, 呼吸 등 一切의 生命活動을 비롯하여 生理作用을 하면서 一身을 週流한다. 心은 火를 주관하므로 君火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君火를 보조하는 의미로서 相火가 있다.⁸⁾ 이 君火, 相火는 위치가 다르고 象이 다를 뿐 실상은 하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病理的으로는 六淫의 하나로써 溫熱, 暑熱 등이 모두 火에 속하는 病邪이며, 그 성질은 陽에 속하고 病症은 모두 熱性으로 표현된다. 病理變化 과정 중 각종 病邪를 感受하거나 혹은 內傷七情, 五志過極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모두 火로 변화하게 되며, 生理的인 火도 그 상태가 過亢하게 되면 病理的인 火로 轉化하게 된다.

心火가 亢盛하면 面赤, 心中煩熱하고, 火가 心神을 動搖시켜서 睡眠不寧, 失眠 등의 症狀이 나타나며, 腎陰이 虧損하여 相火가 亢盛하게 되면 多夢, 失眠, 頭痛, 眩暈, 惡心煩熱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⁶⁾ 또한 五志過極하면 그 臟腑의 火가 病邪로 작용하여 각종 症狀을 유발하게 되는데, 喜怒憂思悲恐驚의 情志活動이 失調되어 病理的인 機能亢進을 일으키는 것을 五志之火라 한다. 情志와 氣의 활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長期的으로 精神活動이 과도하게 興奮 또는 抑鬱케되면 氣機를 紊亂케하여 臟腑의 眞陰이 虧損되어 煩燥, 易怒, 眩暈, 失眠 등의 症狀을 發하게 된다.

따라서 火는 모든 心因性 疾患을 일으키는 原因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아진다. 小兒은 小陽之體라서 火가 亢進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 心火가 亢盛하거나 腎陰이 虧損되어 記憶力 低下나 學習能力的 減退가 일어나기 쉽다. 火로 인하여 記憶力 低下나 學習能力이 減退되는 경우에는 淸熱瀉火 또

는 滋陰清熱 시키는 治法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清熱瀉火의 경우에는 導赤散¹⁶⁾을 사용하여 生地黃으로 清熱涼血, 滋陰시키며, 木通과 竹葉은 清心降火하고 利水시킴으로써 熱을 아래로 끌어내려 尿路를 따라 排出시키며, 甘草穗는 清熱瀉火하고 諸藥을 調和시킨다.¹⁷⁾ 이 藥物들은 瀉火시키면서도 胃를 傷하게 하지 않아서 小兒의 약한 消化器係에 障礙를 招來하지 않으며, 清心養陰시키고 利水導熱하면서도 陰을 손상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에 小兒에게 적합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三黃瀉心湯¹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大黃이 泄火시키고 黃蓮과 黃芩은 上·中焦의 熱을 맑게 하여 心火를 解除할 뿐만 아니라 一切의 實熱邪火를 泄하기도 한다. 다만 藥物의 性質이 大苦大寒하므로 心火上炎이 重症이 경우에만 限하여 신중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滋陰清熱의 경우에는 知柏地黃丸, 當歸地黃湯,¹⁶⁾ 大補陰煎 등의 滋陰을 主로 하는 處方에 黃芩, 黃蓮, 黃柏 등의 清熱之劑를 加味하여 사용하면 有效하다.

4) 痰

痰은 體內的 非生理的인 體液의 總稱이며, 반면 生理的인 體液을 津液이라고 한다.⁸⁾

津液의 變調란 身體內에서의 水分代謝障礙를 뜻하는 것으로서, 代謝機能이 健全하여 水分의 吸收, 排泄, 分配, 循行 등이 순조로우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原因으로 하여 障礙를 받으면 分泌 및 排泄의 異常, 分配의 異常으로 水分의 偏在나 停滯에 의한 分布의 不均衡, 循環의 不調 등으로 組織液의 過不足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體液의 變調는 體內에 불필요한 體液의 貯溜를 招來하게 되며, 이런 貯溜된 體液은 性質이 非生理的인 것으로 變하게 되어, 그 부분의 細胞나 組織에 惡影響을 주며, 결국에는 病的變化에 까지 이르게 된다.⁶⁾ 體液은 人體內에서 많은 比率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全身에 分布되어 있

으므로, 體液의 變化나 變調에서 오는 病的症狀역시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하다고 보아진다.

「丹溪心法」에서 “痰在胸膈 使人癡狂或健忘¹⁹⁾”이라고 하여 痰으로 인해 記憶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千金要方」에서는 “痰熱相感而動風 風心相亂則悶瞶 故謂之風眩 大人曰癡 小兒則爲癩 其實則一⁹⁾”이라 하여 小兒 癩疾과 痰熱이 밀접한 관계과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證治準繩」에서는 痰으로 인한 것은 일시적인 病으로 病邪가 獨痰이 아니며, 諸火熱로 인하여 傷亂其心하여 健忘이 생기므로 安心養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다.¹²⁾

이처럼 모든 心因性 疾患의 原因으로 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病理機轉을 보면 “痰迷心竅”, “鬱而成痰 閉塞諸經”, “痰涎壅塞 迷悶孔竅”, “神不守舍 舍空痰塞”, 또는 “心虛而痰鬱”, “心虛而停水”라 하여 心과 心包의 經脈을 阻害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⁸⁾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 發達 不振과 學習能力 低下에 있어서 그 原因이 痰으로 인한 경우에는 豁痰開竅의 治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二陳湯, 甘桔湯,¹⁶⁾ 橘皮竹茹湯¹⁶⁾ 등이 적합하며, 心血이 虛한 경우에는 溫膽湯¹⁶⁾도 有效하다고 보아진다.

3. 記憶力 增進과 學習能率 向上에 도움이 되는 處方

1) 腎陰虛

六味地黃丸¹⁶⁾

熟地黃 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白茯苓 牡丹皮 澤瀉 各三兩 爲末 蜜丸 梧子大 空心溫酒 或鹽湯下 五七十丸

枸杞子圓^{11,20)}

枸杞子 覆盆子 車前子 生乾地黃 地骨皮 續斷 何首烏 巴戟天 菊花 白朮 石菖蒲 遠志 細辛 牛膝 菟絲

子 爲末 梧子大 每日 空心 酒下 十九至二十九

鹿茸丸²⁰⁾

鹿茸 枸杞子 三兩, 白茯苓 人蔘 各一兩半, 乾薑 二兩, 肉桂 半兩, 遠志去心 三錢

十補丸¹⁴⁾

熟地黃 三兩, 黃芪 白朮 山茱萸 杜沖 續斷 山棗仁 各二兩, 白茯苓 山藥 各一兩半, 人蔘 當歸 白芍藥 遠志 各一兩, 五味子 龍骨 各七錢半 金櫻膏爲丸 每服四錢

天王補心丹^{21,22)}

熟地黃 人蔘 白茯苓 遠志去心 石菖蒲 玄蔘 柏子仁 桔梗 天門冬去心 丹蔘 山棗仁炒 甘草灸 麥門冬去心 百部根 杜沖炒 白茯苓 當歸 五味子 各等分 爲末 蜜丸 一兩作十圓 每服一圓 爲末 梧子大 每日 食前 鹽湯酒服十九至二十九

2) 血虛

四物湯¹⁶⁾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各一錢二分半

當歸補血湯¹⁶⁾

黃芪 五錢, 當歸 二錢

加減補心湯¹⁸⁾

陳皮 白茯苓 當歸 白芍藥 生地黃 遠志薑製 麥門冬 山棗仁炒 黃柏 知母 併酒炒 各五錢, 人蔘 白朮 石菖蒲 甘草 各三錢 分二貼 水煎服

降心丹^{18,21)}

熟地黃 當歸 天門冬 麥門冬 各三兩, 白茯苓 人蔘 山藥 白茯苓 遠志薑製 各二兩, 肉桂 朱砂 各五錢 爲末 蜜丸 梧子大 人蔘湯下 三十九

歸脾湯^{16,21)}

當歸 龍眼肉 山棗仁炒 遠志薑製 人蔘 黃芪 白朮 白茯苓 各一錢, 木香 五分, 甘草 三分 作貼 薑五片

棗二梅 水煎服

定志丸^{11,18,21)}

人蔘 白茯苓 白茯苓 各三兩, 石菖蒲 遠志 各二兩, 朱砂 一兩 爲末 蜜丸 梧子大 米湯下 五十九

開心散^{9,18)}

定志丸 去 白茯苓 爲末 每二錢 湯飲任下

朱子讀書丸¹⁸⁾

白茯苓 遠志薑製 各一兩, 人蔘 陳皮 各七錢半, 石菖蒲 當歸 各五錢, 甘草 二錢半 爲末 麵糊和丸 綠豆大 朱砂爲依 臨臥以燈心煎湯下 五十丸

3) 火

導赤散¹⁶⁾

生地黃 木通 甘草 各一錢

三黃瀉心湯¹⁸⁾

大黃 黃連 各二錢, 黃芩 一錢

朱雀丸^{19,23)}

沈香 一兩, 白茯苓 四兩 爲末 蜜丸 小豆大 每服三

聰明湯^{18,21)}

白茯苓 遠志以甘草水泡去骨薑汁製 石菖蒲 各等分 每三錢水煎服 或爲末 每二錢茶湯點服日三

4) 痰

二陳湯¹⁶⁾

半夏 二錢, 橘皮 赤茯苓 一錢, 甘草 五分

甘桔湯¹⁶⁾

桔梗 三錢五分, 甘草 一錢五分

橘皮竹茹湯¹⁶⁾

竹茹 四錢, 橘皮 三錢, 人蔘 二錢, 甘草 一錢

溫膽湯¹⁶⁾

半夏 陳皮 白茯苓 枳實 各二錢, 竹茹 一錢, 甘草 五分

加味茯苓湯^{18,21)}

人蔘 半夏法製 陳皮 各一錢半, 白茯苓 香附子 益智仁 各一錢, 甘草 五分

導痰湯^{22,23)}

半夏 南星炮 橘皮 枳殼 赤茯苓 甘草 各一錢

Ⅲ. 考察

小兒은 태어나면 우선 觸覺으로부터 오는 情報가 腦에 입력된다. 觸覺은 感覺機能을 발달시키는 첫 단계로서, 產母가 嬰兒를 껴안고 입에 젖을 갖다대는데서 시작하여 만지고 씻겨주고 흔들어주는 것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런 產母의 자극을 통하여 運動神經이 서서히 발달한다. 人間의 皮膚에는 神經細胞가 연결되어 있고 皮膚에서 오는 자극이 腦細胞의 機能을 활발하게 하며 腦細胞가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갓 태어난 嬰兒의 경우 많은 물건을 보여주어 익숙하게 하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자꾸 만져서 觸覺도 발달시켜주는 것이 腦의 發達을 촉진시킨다고 보아진다.

조금의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感覺機能과 이에 해당하는 腦의 發達은 胎兒가 태어나서 바로 시작되는데, 이때 感覺의 發達을 沮害하면 腦의 機能이 弱화되고, 이에 해당하는 腦細胞의 成長에 障礙를 초래하게 된다.

韓醫學에서는 西洋醫學的인 腦의 生成이나 機能面에 대해 獨自的인 認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韓醫學的 理論을 바탕으로 治療面에 있어서도 일정한 治療體系가 세워져 있다. 특히 記憶力 向上이나 健忘症의 治療는 文獻的으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18,19,20,21,22,23)} 小兒의 記憶力 向上이나 學習能力 發達의 문제는 결국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아진다.

腦를 機能的인 面에서 볼 때, 韓醫學에서는 腦의 機能은 心에서 담당한다고 인식하였으며, “心藏神”이나 “心者 精神之所舍也”, “所爲任物者爲之心”이라 하여 모든 生命活動 및 精神活動을 心이 주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3,5,10)}

心은 人體 生命活動의 主宰로서, 臟腑 가운데에서도 首位를 차지하며 각 부분을 統割하므로 “心爲一身之主⁵⁾”라고 한다. 또한 人間의 思惟活動이나 臟腑機能의 協調 및 氣血의 通暢도 心의 機能에 依存하므로 心이 生命活動의 中心이라고 보아지며, 外界의 事物을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思惟活動도 역시 결국 心에 의해 완성되어진다고 사려된다.

人間의 生命의 起源은 精에 있고, 生命의 活動能力은 氣이며, 그것이 外在적으로 표현된 것이 神이라고 볼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 精血이 神志活動의 物質的 基礎가 된다는 것과 “心生血”이나 “心主血脈”를 통하여 “心主神志”의 機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心血이 充滿하면 精神狀態가 明皙해지고 思考가 敏捷해진다.

神이란 思想意識 및 生命活動을 나타내며, 父母의 精氣가 交合하여 生成되는 것이니, 胚胎가 形成되면 生命의 神도 동시에 생기게 된다. 出生後에는 飲食物을 섭취하는 것에 의하여 神도 滋養을 받아 무궁한 精神活動과 感情調節을 하게 된다. 人間의 精神機能의 具體的인 現象으로서 나타나는 感情을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七情으로 나누며, 이런 感情을 統括하는 것은 一身의 君主격인 心臟에 있는 神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과 學習能力에 있어서 神의 作用이 중요하다고 보아지며, 記憶力 및 學習能力의 向上을 위해서는 神을 滋養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精은 生命의 原初的 物質로서, 先天의 腎氣와 後天의 水穀之氣가 결합하여 化生되어진다고 인식하며, 人體를 구성하고 生命活動을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腎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生殖能力을 갖춘 物質, 즉 生殖의 精을 狹義의 精이라 보며, 男女 兩性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各自의 生殖能力으로써 人類를 존속시키는 일을 行하는 精을 말한다. 반면에 廣義의 精은 水穀의 精微로움에서 化生하여 腎에 저장되어져 있는 精과 五臟六腑의 精, 氣, 血, 津液 모두 精의 範疇內로 인식되며, 이들은 相互依存하고 變化하며 補充함으로써 正常的인 生命活動을 維持하게 된다고 보아진다. 또한 精은 髓를 生하는데, 頭腦는 精髓의 集合體이므로 精, 髓, 腦는 相互間에 聯關이 있다. 人間의 精神活動이 腦로부터 나오며, 肢體의 活動과 耳目의 聰敏함과 모든 精神活動이 모두 腦髓와 有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 發達을 促進시키고 學習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精을 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氣는 人體를 구성하는 基本物質이라고 보며, 氣의 운동과 變化에 의해 生命活動이 發顯한다. 氣는 잠시도 쉬지 않고 全身을 運行하는데, 人體의 모든 臟腑活動이 升降出入하는 氣의 運行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運行이 停止한 즉 生命도 死滅하게 된다. 이러한 氣의 升降出入은 臟腑機能의 相互協助와 相互配合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氣가 通暢·調達됨으로 말미암아 升降出入하는 運動이 平衡狀態를 형성하여 正常的인 生理機能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小兒는 生理的으로 腎弱한 반면에 心旺하기 때문에 心理的 障礙 및 泌尿生殖器 障礙가 생길 수 있으며, 肺弱하기 때문에 宣發, 肅降 機能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呼吸에 障礙가 잦으며 이로 인해 頭腦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과 學習能力 向上에 있어서 氣의 升降出入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며, 氣의 원활한 運行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小兒의 記憶力 發達不振이나 學習能力 低下는 精

損, 血虛, 火, 痰이 주된 原因이라고 보아진다.

小兒는 生理的으로 腎陰이 不足하며, 陽熱이 많다. 이런 小兒에게 腎陰이 虧損되면 頭腦가 空虛해지므로 머리가 어리럽거나 健忘症이 나타난다. 이런 症狀은 腎陰이 不足하게 되면 腦와 心에 영향을 주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腎陰이 虛해지면 記憶力 發達이 不振하게 되며 學習能力이 低下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治法으로는 滋陰補腎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六味地黃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腎陰虛한 상태가 뚜렷한 경우에는 純甘壯補하는 左歸丸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腎陰이 不足하면서 氣血이 모두 虛한 경우에는 大補陰煎을 사용한다.

滋陰降火를 위주로 치료할 경우에는 知柏地黃丸을 사용하여 六味地黃丸에 知母와 黃柏을 加하여 陽熱을 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營血의 生成, 循環에는 五臟이 관여하며, 五臟 역시 營血로 營養되어 있으므로, 營血의 不足이나 質的인 變化나 變調는 五臟生理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精神生理의 變調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心脾의 營血이 不足하면 健忘症이 發生하는 것도 이러한 緣由라고 보아진다.

心血과 陰이 虛하면 心煩, 易驚, 失眠, 健忘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데, 이는 血의 生成이 원활하지 않거나 失血이 原因이 되어 發生하며, 지나친 精神力의 疲勞로 인하여 營血이 虛損해지거나 陰精이 消耗되어서도 나타난다.

小兒에게 血虛가 있는 경우는 顔色이 蒼白하고, 口술이 淡白하며, 眩暈이 있고, 心悸와 失眠이 있으며, 舌質淡, 脈細無力이 나타난다. 특히 心悸나 多夢, 易驚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心血이 不足한 경우로써 記憶力 및 學習能力 發達을 阻礙하므로 四物湯, 當歸補血湯 등을 사용하여 補血養血하는 것이 중요하다.

小兒에게 있어 腎陰虛와 血虛는 根本的으로 유사하며, 따라서 治療面에서 두 處方을 合方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고 有效하다고 보아진다.

火는 모든 心因性 疾患을 일으키는 原因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아진다. 心火가 亢盛하면 面赤, 心中煩熱하고, 火가 心神을 動搖시켜서 睡眠不寧, 失眠 등의 症狀이 나타나며, 腎陰이 虧損하여 相火가 亢盛하게 되면 多夢, 失眠, 頭痛, 眩暈, 惡心煩熱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小兒는 小陽之體라서 火가 亢進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 心火가 亢盛하거나 腎陰이 虧損되어 記憶力 低下나 學習能力의 減退가 일어나기 쉽다. 火로 인하여 記憶力 低下나 學習能力이 減退되는 경우에는 清熱瀉火 또는 滋陰清熱 시키는 治法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清熱瀉火의 경우에는 導赤散을 사용하여 清心養陰시키고 利水導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三黃瀉心湯을 사용하여 心火를 解除하고 實熱邪火를 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滋陰清熱의 경우에는 知柏地黃丸, 當歸地黃湯, 大補陰煎 등의 滋陰을 主로 하는 處方에 黃芩, 黃蓮, 黃柏 등의 清熱之劑를 加味하여 사용하면 有效하다.

痰은 體內的 非生理的인 體液으로써, 分泌 및 排泄의 異常, 分配의 異常으로 水分의 偏在나 停滯에 의한 分布의 不均衡, 循環의 不調 등의 原因이 된다. 痰으로 인하여 諸火熱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傷亂其心하여 健忘이 생기므로 祛痰清熱, 安心養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心因性 疾患의 原因으로 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心和 心包의 經脈을 阻害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小兒의 記憶力 發達不振과 學習能力 低下에 있어서 그 原因이 痰으로 인한 경우에는 二陳湯, 甘桔湯, 橘皮竹茹湯 등으로 豁痰開竅의 治法을 사용해야 하며, 心血이 虛한 경우에는 溫膽湯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小兒의 記憶力과 學習能力 低下를 유발하는 原因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胎兒 때나 嬰兒 때부터 頭腦의 成長을 촉진하고 發育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有效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妊娠婦나 小兒가 音樂을 듣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단순한 유행가나 우리나라 고유의 唱歌이 單純音도 頭腦 發達에 도움이 되지만, 바흐와 같은 바르크 음악은 多音性 音樂이기 때문에 頭腦 發達을 더욱 촉진시키며 心身의 安靜을 유도한다. 특히 多音性 音樂의 구성과 數學의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頭腦를 좋게 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악기를 배우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라고 사려된다.

小兒의 身體成長과 頭腦의 發達은 感覺機能의 훈련 이외에도 사랑과 친밀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頭腦 發達과 成長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小兒가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先行되어야 한다.

IV. 結論

小兒의 記憶力 增進과 學習能力 發達을 보다 容易하고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 文獻的 考察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腦의 機能은 心에서 擔當하며, 모든 生命活動 및 精神活動은 心이 주관한다.
2. 神은 感情을 總括하며 精神活動을 調節하는 作用을 하므로, 小兒의 記憶力 및 學習能力의 向上을 위해서는 神을 滋養시키는 것이 有效하다.
3. 精은 生命活動의 根本이 되므로, 小兒의 記憶力 發達을 促進시키고 學習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精을 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小兒의 記憶力과 學習能力 向上에 있어서 氣의 升降出入이 중요하며, 氣의 원활한 運行이 필요하다.

5. 小兒의 記憶力 發達不振이나 學習能力 低下는 精損, 血虛, 火, 痰이 주된 原因이라고 보아진다.

이상의 結論에서 볼 때, 小兒의 記憶力과 學習能力의 向上은 韓醫學의 治療가 상당히 效果的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父母의 積極的인 관심과 사랑이 보다 중요하다고 사려된다. 또한 向後 보다 客觀的이고 持續的인 研究를 통해 더욱 發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參考文獻

1. 강성중, 두뇌의 신비, 서울, 전파과학사, 1999, pp.17-19, 40-43, 61-71
- 2.金正鎮, 生理學, 서울, 高文社, 1986, pp.217, 226-232
3. 楊維傑, 黃帝內經靈樞, 서울, 一中社, 1990, pp.85, 87-88, 268-269, 271, 279-283, 394, 494-495
4.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昭人出版社, 台中, 31卷 p.4
5. 楊維傑, 黃帝內經素問, 서울, 一中社, 1990, pp.8, 36, 76, 88-89, 95-96, 133-134, 216, 527-528
6. 金完熙 등 編著,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8, pp.46, 49-55, 63-65, 167, 169-170, 188-190, 302-303
7. 宋 太宗命 選, 太平聖惠方(卷一), 서울, 輪成社, 1978, pp.101-104
8. 黃義完 등 編著, 東醫精神科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1987, pp.53-56, 157-163
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成文化社, 1992, pp.139-148, 265-266
10. 王克勤, 中醫神主學說,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 pp.8-10
11. 王清任, 醫林改錯,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75, pp.22-24
12. 王肯堂, 證治準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332-334, 489-491
13. 林佩琴, 類證治裁, 台北, 旋風出版社, 1980, pp.255-257
14. 程國彭, 醫學心悟, 서울, 友聯出版社, 1961, pp.209-210
15. 金完熙 外, 中醫生理學, 서울, 경희大學校出版局, 1993, pp.370-374, 382-386
16.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92, pp.137, 166, 179, 195, 199, 208, 212, 240
17.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室,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p.161-163, 182-183, 193-194, 302-304, 305-306, 537-538, 580-581, 626-627
1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8, pp.98, 201-203, 213, 651-652
19.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成文化社, 1989, pp.368-369
20. 朱肅, 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3455-3457
21.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醫聖堂, 1988, pp.172-173
22. 張路,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314
23.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375-376